

40대가 바라본 2000년대의 목회자상

최 완 복

(동래제일교회 집사
삼진산업 대표)

앞날에 대한 꿈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마음에 그리워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자라왔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삶을 기쁘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크고 작은 아름다운 소망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것이 낙망과 비관 뿐이고 도저히 우리의 꿈을 계획할 수 없고, 이를 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주의 백성으로 둘된 교회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않는 예배의 아름다운 삶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의 비중은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40대로서 2000년대의 목회자에 대한 바램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사상, 또한 인위적인 해석과 방법에 의한 선포되는 것은 바뀌어져야 하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데 성령의 인도함없이 그 말씀을 듣는 양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무디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변화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사도시대에 오순절 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같이 서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행 2:17~24)라고 선포함은 현재의 말세를 두고 하신 말씀이며, 고전 12:7~11절의 은사에 대한 말씀은 지금도 2000년대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며, 주님 사역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보수적이니까 성경말씀에만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빗장을 잠그는 믿음의 자세도 개선되어야 하겠고, 병고치는 은사, 방언, 예언, 영을 분별함 등이 강압적이고 인위적으로 주장되는 것도 반성해야 한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주시는 은사와, 주를 위해 자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함에 쓰여지는 영적충만한 삶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이제는 교회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면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목회자에 따라서 교인수가 많고 예배당도 크고, 아름답게, 또 많은 예산으로 다양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듦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만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노라 할 수 있을지… 목회자의 설교말씀이 자신의 정신적인 면과 생활, 또한 교제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단순한 호감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게 되면서 성경찬송만 들고 다니는 교인만 양산되는 일은 없을까?

한 마디로 교인(Church member)은 많은데 신자(Christian)는 늘지 않음에 교회는 반성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 들어서면 자상하고 인자하며 사랑이 풍부해 보이는데 교회 밖을 나서면 이기주의적이고 냉정하며, 인간미가 없는 두 얼굴의 사람과 몇십년을 교회 다녔어도 주 안에서 낮아지고 섬기며 봉사하기를 피하는, 혼신과 사랑이 없는 많은 신자들을 위해 교회는 더욱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야 한다. 교회의 외형과 교세를 자랑하기 보다,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 입이 아닌 실천으로 은밀하게 행하며, 외롭고 슬픈 이웃의 참 친구가 되며, 가슴으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아가페적 사랑을 전하는 신자가 많을 때 교회가 교회다와지며 거듭나는(더욱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셋째는, 섬김에 본을 보이는 목자를 양떼들은 원한다. 교회의 실권자로 섬김을 받아야 하고 자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목회자의 원하는대로 해결되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바람직스러운 것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 하여 칭찬 듣는 일곱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행 6:3~4)처럼 사도들의 행함과 제자들의 발을 쟁기면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목회자는 더욱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또한 양떼를 이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싸움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일을 당하면서도 도망하지 않고 돌보아 주는 목자, 못나고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는 양떼들에게도 위로하며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하며 포근히 감싸주고 자기 자신은 부서져 없어지며 양떼들만 나타나는 목자, 목자 자신을 위해서 양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떼들이 영적 풍성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의무이고 사명이며, 모든 면에서 섬김의 본이 되는 것이 참목자의 나가야 할 길이라 믿는다.

생각보다 많은 목사들이 남모르는 수고와 애씀과 봉사를 하고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목사와 평신도가 협력하여 교회를 부흥 성장 시키자는데 있는 것이다. 영.육간에 강건한 성장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권면하며 협조하여야 할 것 이다.

IV부

변화된 사회에서의 교회와 목회현장

- IBM에서 얻은 회개의 교훈/John Ortberg
- 더 이상 소경이 아닙니다/Martha Anne
- 베이비붐 세대와 교회/Kenneth H Sidney